

수의학교육의 발자취 - 3



양 일 석
 (재)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 지난호에 이어 -

5. 서울농업대학 수의학과

서울시립대학교(현)의 전신은 일제 강점기의 경성공립농업학교(1918~1945)로부터 시작한다. 해방이후 학교 이름이 서울 공립농업중학교로 변경되었지만 해방 후에도 한 동안 “경농”출신이라는 말로 불리어져 왔다. 경성농업학교부터 서울농업대학 수의학과와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1918년 5월1일 수업연한 2년 (2학급)의 경성농업학교 문을 열었다.(인가 1918.2.28) 1920년 4월1일 학칙을 개정하여 수업연한을 3년으로 늘리고 3학급으로 편성하였다. 1922년 4월1일 학칙개정으로 입학자격을 심상소학교와 보통학교(6년)을 졸업한자로 하고 농업과와 양잠과를 병치하여 2학년 부터 분과하도록 하였으며 학급은 5학급으로 하였다. 1924년 4월1일 다시 한 번 학칙을 개정하여 수업연한 연장(5년)과 학생정원을 대폭 늘렸다(8개 학급 300명).

1930년대에 들어서자 세계적 공황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하자 일제는 미곡증산계획 추진방침을 정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지의 측량과 개량이므로 토목기술자가 필요하였다. 또한 이 무렵(1930년대 중반)은 일제가 만주와 중국을 침략하는 중일전쟁을 유발함에 따라 미국·영국 등의 경제 제재를 받아 농산물은 물론 광공업 원료의 수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선 남쪽의 따뜻한 지방에서는 면화를 재배하고 북쪽의 서늘한 산지에서는 양을 많이 키우게 하는 정책 이른바 남면북양(南綿北羊)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목적으로 1939년4월1일 학칙 일부를 개정하여 수의축산과를 설치하였고, 이듬해 4월1일에는 농업토목과를 설치하였다. 이 당

시의 노무라 교장(일본인)의 말을 인용하여 본다. “일중 전쟁 4년을 맞아 인적·물적 자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中略. 반도(조선)에서의 농업 개발은 시급 하 긴급을 요한다. 특히 수의축산계의 획기적인 비약에 따라 1939년 새로 수의축산과를 증설하였다. 그리고 종래 10학급 정원은 15학급 7백명 정원으로 확충하였다. 이로써 본교는 제일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940년에는 일본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동양경제의 블록화를 확립하는데 기본적 지위를 점해야 할 미곡증산산업의 확충요구에 기초하여 농업과의 반을 할애하여 농업토목과를 설치하려 한다.” 수의축산과의 설치 방식은 1학년과 3학년을 동시에 선발하여 반을 편성함에 따라 경농은 1941년 수의축산과 첫 졸업생 36명(동창명부는 44명), 1942년 31명이 졸업하는 등 연속하여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1946년 9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학제의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실업학교는 각각 6년제로 하였다. 그리하여 5년제였던(중전 무렵에는 수업연한 1년 단축하여 4년) 경성농업학교는 6년제가 되었으며(이러한 수업연한의 변동으로 1947년과 1948년 졸업생은 없었다), 1946년 10월10일부터 교명이 서울공립농업중학교로 개명되었다. 서울농업중학교(6년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어서 학교 당국은 대학설립을 추진하였고 1950년 6월12일 초급대학(4년제) 설립인가(농업과, 임학과, 수의학과, 농업공학과)를 받았다. 그러나 6.25의 발발로 우리나라에서 전후후무하였던 4년제 초급대학은 입학생을 한 번도 선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교부는 1951년 3월 20일자로 기존의 6년제 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고 대학의 입학자격을 “고등학교와 사

범학교(중학교 졸업자가 진학하는 3년제, 지금은 교육대학으로 발전) 졸업자와 그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 한다”는 방침과 초급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는 방침과 따라, 휴전 직후인 1953년 10월5일 개정 교육법에 근거한 초급대학 설립인가(원예학과, 수의학과, 농공학과, 양잠학과)를 다시 받았다 그리하여 한 캠퍼스 내에 청량중학교, 서울농업고등학교, 서울초급농업대학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다.

1954년(인가는 1953년)에 초급대학의 학생모집이 있었고, 1956년 3월 21일자로 4년제 대학(원예, 수의, 농공, 양잠)으로 승격되었기에 초급대학은 졸업생을 배출하지 않고(수의학과는 실제 3명의 졸업생 있었음)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4년제 대학으로 연계되었다. 따라서 수의학과에도 입학할 때는 초급대학으로 입학하였지만 졸업은 4년제 대학을 이수한 수의학사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초급대학 1회 입학생이 4년제 대학 제1회 졸업생으로 수의학과인 경우 1958년 3월 37명이 수의학사가 탄생하였다. 동창회명부인 ‘2010년 서울시립대 동문록’은 1954년 이전에는 졸업 기준으로, 1954년 이후에는 입학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졸업생이 아니면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거니와 서울시립대학교 90년사는 학적부를 근거로 삼았으리라 생각되어 서로 다를 때는 90년사에 비중을 두었다. 90년사에 나타난 졸업생을 살펴보면 경성농업학교 수의축산과(41년-45년) 졸업생이 176명, 서울공립농업중학교 수의축산과(46-51년, 그러나 47, 48년 졸업생은 없음) 졸업생은 109명, 서울농업고등학교 수의축산과(52년-58년) 졸업생은 324명, 서울농업(초급)대학 수의학과(56년-73년) 395명, 서울산업대학 수의학과(74년-78년) 졸업생은 106명이다. 경성농업학교 졸업생(176명)은 당시의 제도를 미루어 보면 수의사 국가고사 없이 신청에 의하여 면허를 발급받았을 것이고, 58년 이후의 서울농업대학 졸업생은 국가고사 합격 후 수의사면허를 취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공립농업중학교(109명), 서울농업고등학교(324명), 서울농업대학의 56년 졸업생(3명, 초급대학 2년만 졸업한 듯)은 수의사면허 취득의 길은 쉬지는 않았겠지만 있었다. 이를 테면 해방후부터 1957년 수의사국가고사 시행 이전까지는 정규과정(수의과대학)을 이수하지 않은 졸업자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험제도가 있었다. 또한 수의사 국가고사 시행 이후에도 예비시험 제도가 있어 정규과정 비이수자의 수의사 진입의 길은 열려있었다. 이 예비시험의 응시자격은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하였으며 시험과목은 학술시험 13과목과 실기시험 2과목인데 과목합격은 4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예비시험제도는 수의사법이 개정(1974.12.26)되면서 폐지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군사정부의 대학정비 방침에 따라 서울농업대학은 수의학과 1962년 학생모집은 하지 못하였으나 1962년 부활되어 1963년 신입생 모집(20명)을 하였다. 이러한 입학정원은 1973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수업연한 6년제 실시로 수의과대학이 통폐합된 1974년에는 대학명칭이 서울산업대학으로 변경되면서 수의학과는 폐지되었고 이후 부활되지 못하였다. 그 후 수의학과가 있었던 다른 대학들에는 학과 부활이 있었으나 서울농업대학은 대학의 설립자인 서울에서 서울농업대학을 서울산업대학으로 대학명칭을 변경하면서 농업계학과(양잠, 농업)는 폐지하고 도시산업 관련 학과(도시행정, 도시공학, 위생공학)로 지향하였으므로 수의학과 부활이 어려웠다.

서울농업대학 수의학과 설립부터 근무하신 교수진을 살펴보면 류용근(1955.9~1975.11, 수의내과학), 강면희(1956.10~1965.3, 축산학), 서부갑(1956.11~1989.8, 미생물학, 수의공중보건학), 이기풍(1958.4~1965.1, 수의조직학, 수의병리학), 조충호(1958.4~1977.5, 수의산과학), 김학운(1961.3~1975.11, 수의생리학), 류승룡(1961.8~1971.5, 수의약리학), 김영섭(1963.12~1976.2, 수의기생충학), 오순섭(1965.6~1976.2, 수의해부학), 장경진(1966.9~1976.2, 수의외과학), 김상균(1967.2~1976.2, 수의조직학, 수의병리학), 최창해(1967.8~1976.2, 축산학), 용만중(1967.12~1977.3, 생화학), 정영석(1910.10~1974.12, 수의미생물학), 김대은(1970.11~1975.8, 수의생화학), 이방환(1971.1~1977.2, 수의내과학), 남치주(1971.5~1977.5, 수의외과학) 등이 수고하였는데 서부갑은 환경공학과에서 정년을 맞았다.

서울시립농업대학 수의학과는 경성공립농업학교(1918~1945)로부터 시작(수의축산과는 1939년4월1일 학칙 개정 3학년 진급생에서 선발)하여 서울공립농업중·고등학교(1946~1958), 1954년(인가는 1953년)에 초급대학의 학생모집(40명)이 있었고, 1956년 3월 21일자로 4년제 대학(원예, 수의, 농공, 양잠)인 서울농업대학(1954~1974)으로 성장하였다. 1974년부터 시행되는 수의학과 통폐합으로 신입생모집이 없었으며 이와 아울러 서울시의 정책전환에 따라

서울농업대학이 서울산업대학(1974~1981)으로 교명이 변경되면서 농학계 학과는 폐지되었다.

6.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남대학교의 모체가 된 대학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4개 대학이다. 3개는 도립대학 즉 도립 광주수의과대학, 도립 광주농과대학, 도립 목포상과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 대성대학이다. 대성대학은 사립이지만 국립 전남대학교가 창립되면 국가에 헌납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전남대학교의 한 축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1952년 6월 9일 전남대학교의 개교식이 거행되었다.

전남대학교 설립의 모체가 되기도 한 도립 광주농과대학의 전신은 구한말 1909년 4월 20일 설립 인가를 받은 도립 광주농림학교이다(순종 칙령 제 56호 실업학교령,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되 지방사정에 따라 1년 단축하여 2년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1920년까지 졸업생은 2년제로 졸업하였고 1924년 졸업생은 3년제로 졸업하였으며 1924년 3월 31일 학칙변경으로 수업연한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이후 졸업생은 1944년(12월 22일 거행)까지는 5년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1945년 3월 28일의 졸업식은 태평양전쟁의 영향으로 4년제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편 광주농림학교는 광주시 임동에 자리 잡고 있었으나, 현재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이 있는 용봉동으로 이사한 것은 1938년이였다.

광주농업학교는 해방과 더불어 11월 1일 광주공립농업중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47년 9월 1일 학칙변경으로 수업연한이 6년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교명변경이 있었는데 광주공립농업중학교가 광주농업중학교로 변경되었다. 이 무렵 광주지방 유지들은 광주농업중학교(6년제)를 대학으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1950년 5월 27일 도립 광주초급농과대학으로 인가되었다. 이와 같이 광주농업중학교가 광주초급농과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그 일부는 전남공립잠사중학교와 병합하여 전남농업중학교로 개칭하고 광주시 임동 구교사로 이전하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이듬해 8월 31일자로 전남농업중학교는 광주농잠고등학교로 승격되었고 같은 해 광주농업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1953.4.1 축산과가 신설되어 농학과 2학급, 축산과 1학급의 학교가 되었다. 이 학교는 2001년 3월 1일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도립 광주 초급농과대학의 입학자격은 중학교 4년 수료자이었으며, 광주농업중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농학과 단일학과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곧 이어 6.25가 발발하였지만 4년제 대학으로 승격운동이 전개되어 4년제 도립광주농과대학이 설립인가(1951년 9월 1일)되었다. 이때의 학과는 기존의 농학과와 더불어 임학과, 축산학과의 3개 학과이었고 모집정원은 농학과 60명, 임학과 40명, 축산학과 40명이였다.

새로운 학기 시작이 4월 1일로 변경되는 첫해인 1952년 4월 1일 국립 전남대학교 설립이 인가되어 광주농과대학은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때의 농과대학 건물은 광주농업중학교(6년)로부터 물려받은 1938년에 건축한 낡은 건물들이었지만 다른 대학에 비하여 좋은 시설을 갖추었다. 국립으로 이관된 첫해인 1952년 11월 15일 교수들의 의견에 따라 축산학과의 학과명을 수의학과로 개칭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수의학과 입학생은 53년 4월 1일 입학생이라 하겠지만, 축산학과로 입학한 1952년 4월 입학생 역시 졸업 시에는 수의학과로 졸업하였으며 이 분들은 동창회명단에는 제2회(1956년 졸업생)로 기록되고 있는 바, 제1회 수의학과 졸업생인 1955년 졸업생은 학력을 인정받아 편입하여 졸업한 것으로 추측된다. 제1,2회 졸업생은 수의사 국가고사 실시 전이므로 졸업과 동시에 농림부에 수의사면허증을 신청하여 받았지만 3회 졸업생(1957년)은 제1회 수의사국가고사에서 100% 합격하였음을 기록하고 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초기인 1953년 4월 기준으로 교수진의 구성은 백남현(51.8.31~71.2.28, 축산학), 육종룡(52.3.31~53.5.15, 가축해부학), 진영주(52.6.1~64.3.2, 내과학), 한봉우(52.10.25~64.3.20, 가축조직학), 임봉호(55.9.30~84.9.30, 가축병리학), 박종만(54.4.10~87.2.28, 약리학), 김우권(55.6.1~92.5.8, 가축생리학), 박영준(58.4.30~92.2.29,)이 60년대 까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이끌었으며, 육종룡이 부임후 1학기를 마치고 전근함에 따라 이재홍(1955.2.28~92.2.29)이 부임하였다.

이때 학과에 배정된 교수는 6명이었으며, 강의실 이외에 가축병원(165m²)과 축사(79m²) 그리고 계사(79m²)의 시설을 갖추었다. 개교 당시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수의과대학 예과 및 부설 중등교원양성소가 1953년 용봉동 캠퍼스로 옮겨지게 되었고, 초대 총장인 최상채 총장은 건물을 보수하여 수의학과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수의학과는 1952.4.1부터 57.3까지 5년 동안 용봉동캠퍼스에서 수학을 하다가

수의학과만 시내 동명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그해 4월부터 가축병원 또한 운영하기 시작하여“로 보아 이전의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임상실습 문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단일학과가 주 캠퍼스에서 떨어져 있다는 것은 교육이나 행정상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다시 용봉캠퍼스로 합치기로 하고 농과대학 종합생활관이 준공(1966년 12월)됨에 대학 당국은 동명동의 건물을 전남 도 교육위원회에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부속 가축병원은 동명동에 둔 채 용봉동 농과대학 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가축병원은 약 10년 후인 1977.3.2에 용봉동 캠퍼스에 동물병원을 신축하여 이전하게 되었다.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교과과정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1950년대는 “교양이 64학점, 전공이 120학점, 선택이 40학점으로 총 224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전쟁의 영향 탓인지 교련 6학점(1학년부터 3학년 매학기 1학점), 군사훈련 8학점이 교양필수이었고, 농업개론, 농장실습, 식물학, 임업대의, 문화사, 법학, 철학, 경제학, 독어 등 인문계통과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었다.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얼마인지 표시가 없어 알 수 없지만 선택을 한 학점도 이수하지 않아도 184학점이므로 그때는 교수진 확보가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부과되는 학점이 대단히 많음은 볼 수 있다. 1960년대는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으로 축산, 낙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낙농학, 목야론, 인공수정, 공중위생학, 축산가공학, 환경위생학 등이 학과목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ROTC(학도군사훈련단)의 등장으로 3, 4학년 2년 동안 군사학의 과목이 있었다. 물론 ROTC를 받지 않는 학생은 군사학을 이수할 필요가 없었고 졸업학점이 그 만큼 적었다. 이때는 교양46학점, 전공97학점, 선택 25학점으로 총 167학점으로 50년대보다는 상당히 감소한 양상이다. 수의대 통폐합이 있기 전(1973년도 까지)은 교양 49학점, 전공 98학점, 선택이 17학점으로 총164학점으로 편성되었다.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교련 학점이 증가하였고(1, 2학년에서 1년 연장하여 1, 2, 3학년), 국민윤리 교과목이 등장하였다, 교원자격 이수자를 위하여 교원원리(선택과목인 듯) 과목이 있었다. 그리고 축산분야의 강좌가 사양학, 육종학, 초지학이 등장함을 볼 수 있다. 이때 수의법규가 처음으로 학과목으로 있음을 볼 수 있는데 68년 2월에 졸업한 필자의 수의사국가고사과목에 수의법규과목이 있었는데 전남대 교과목에 누락되었거나 공중위생에 가려져 있었던 듯하다. 교양학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교육법시행령 119조3항인 졸업학점의 30%는 교양학점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규정이 삭제(대통령령 14537호, 1995.2.28)될 때까지는 졸업사정 때 교양학점 30%이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학사과정의 모집 정원변화는 1952.4.1 40명(입학 시에는 축산학과이었지만 같은 해 11월15일 수의학과 합)으로 출발하였으며, 1961년 대학정비령에 따라 62년 입학생은 25명으로 감축되어(이 당시의 내용은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참조), 1973년 수의학과와 통폐합에 이를 때까지 유지되었다. 1976년에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와 더불어 수의학과가 부활되어 입학정원 30명을 모집하였고, 1980년에는 40명으로, 1994년에 5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였으며, 1988년 농과대학 수의학과에서 수의과대학으로 승격되었으며, 1998년에는 수업연한 6년의 수의과대학이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